

# 지리산권 발전 '어깨동무'

### 유성엽 위원장·7개 시군 단체장 간담회... 광역관광개발 공동건의문 전달

18일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정국 정읍·고창)과 이철우 남원시장, 서기봉 구례군수, 허기도 신원군수, 원영희 중수부군수, 심남식 곡성부군수, 김대정 함양부군수, 이영규 함양부군수 등 7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들은 간담회를 가지고 지리산권 공동발전 방안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3개 도지사(장근, 장백, 장남), 7개 시·군수(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함양군, 신원군, 함양군) 및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용호,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안영형, 자유한국당 여상규, 권석진 의원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은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의 조속 가능 강화와 지속적 사업성과를 위한 예산지원, 지리산 권역 관광수요 대응 및 발전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호산 소총과 화강 구상암을 위한 광역권 관광인프라 구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재 등 지리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을 통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건의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전달은 지난 8월 28일 개최된 지리산권 7개 시·군 자단체장 연례회의에서 지리산권 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과 7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들이 18일 간담회를 가지고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가운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체계화해서 동서회합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위한 공간대를 형성하고 다시한번 실행 의지를 다짐하면서 성사되었다.

그동안 조항은 지리산권 7개 시·군 자단체장회의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2008년도 11월 기초자치단체조합 최초로 성립되어 지리산권역의 공동발전계획과 연호산 소총과 화강암을 위해 가뭄에 왔으며, 지리산 통합관광 및 공동마케팅 기반 구축, 거점관광시설 투자 등 주요성과를 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들은 지난 10여년 간 이론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 둘 시너지를 이룬 것임을 자신하며 앞으로도 지리산권 관광개발 통합·연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리산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책임감 인식과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원영형 유성엽 위원장은 향후 지리산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여건이 잘 갖춰야 7개 시·군의 적극적인 유가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요청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대규모 농촌중심지 활성화 순항

### 순창군, 읍면 소재지 정비 410억원 투입... 주민 만족도 높아

순창군이 7개 읍면에 대규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군은 현재 11개 읍면 중 7개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총 40여억 여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순창읍과 북원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지만, 구림면, 근파리 동계면, 갈매면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순창읍에는 총 100여억원이 투자됐으며 일품공원조성, 사계 주차장 4개소 조성, 옥천공원조성, 덕대미당 정비 등이 이뤄졌다. 일품공원은 순창읍 유일의 공원으로 분류되며, 야외 소공원 등이 만들어져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북원면에는 50여억원이 투자됐으며 북지리공원과 덕대미당 등 휴양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있다. 갈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50억 규모로 대규모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등이 만들어진다. 갈매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광장광장 사업을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구림면은 복지회관 건립과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 할머니 노인복지실, 귀농귀촌자 복지시설, 주차장 조성 등 구림면 특색을 살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50여 사업비가 투자된다.

근파리에는 다목적체육관조성, 게이트보양조성 등소리센터조성, 실용인문학관 조성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내년엔 최종 완공되며 50여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올해 인계면 공모사업 선정에 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역별 유망업종 중심업을 2018년 공모사업에 도합해 11개 읍면 농촌중심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영철 기자

### 임실 노인 바둑·장기대회 개최

'제1회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배 노인 바둑·장기대회'가 18일 개최됐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이강민) 주관하고 임실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 2층 강당에서 각 읍·면 대표 선수 30명을 비롯해 임원, 심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판 군수, 운영부 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2015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교류와 상호 친목모임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군은 대한노인회 임실지회장과 시정당을 받으며 '제1회 장기간도 연합회장배' 출전 자격을 얻는다. 심판 군수는 축사를 통해 "바둑과 장기는 좋은 생각을 기르는 경기로 차세대와 스포츠 레슨에 도움이 된다"며 "그동안 길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경품도 간 화합과 우의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김현영 기자

## 내달부터 시내버스 무료로 환승하세요

### 남원시, 1시간 이내 1회 허용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 제공

남원시는 오는 7월 25일부터 시내버스 환승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내버스 환승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내버스 환승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버스 탑승객들이 1시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환승은 남원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한해 적용되며, 입장 자차단체인 경우, 임신, 순환, 국경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카드 사용은 1인 1카드를 복수 환승 불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요금을 내거나 환승 후 하차 시 하차카드기에 교통카드를 집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료 환승이 되지 않는다. 같은 노선 무료 환승도 불가능하다.

시는 무료환승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내에 운행 중인 남원여객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환승카드를 설치하고, 환승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8월에는 정국 최초로 시내버스 호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환승제와 호출시스템 호출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시내버스 이용의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도시진.

## 농민 올리는 야생동물 고민 해결

### 임실군 피해방지단 가동 종합대책 추진 박차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종합대책 추진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가동한다.

경험이 많은 관내 모방수렵인 25명을 선정해 4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운영한다.

피해 발생 농가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환경보호과(640-2801)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출동해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는 멧돼지 107마리, 고라니 120마리 포획 실적을 거뒀으며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득증대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

치'를 지원하고 있다.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경원 지식 전기골타리 설치의 6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50농가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예상을 위한 장려 푼 아나와 발생한 피해 지원 정책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가 피해 발생 5일 이내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장차 금지 지역,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정책 피해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되며 지난해는 150농가의 시름을 덜어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교통, 경영 및 환경 등으로 속출하고 있는 농가의 고통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김현영 기자

## 지역 소식들

### 남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제공

남원시는 현재 200명의 독거노인과 중장년자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명의 응급관리요원이 직접 가량방문하여 안부확인하고,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하는 등 적극적인 점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7년도 현재까지 약 400건의 점검이 실시되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분체인 게이트웨이와 화재, 가스, 환풍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화재, 가스감지기 등을 통해 응급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게 바로 신고되어 더 큰 사고를 막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강화 시스템이다.

향 예로 최근에 발생했던 응급상황은 열차에서 난 화재에 화재감지기가 감지하였고 119로 자동신고 되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관리대상 어르신은 마취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인명피해 우려는 없었으나, 관리요원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안부 전화가 정말 고맙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시스템관리 및 노인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 마음건강교실 운영 호응

순창군이 독거노인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챙겨주는 사업에 나서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8월 31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교실은 운영한다고 밝혔다. 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마음건강교실은 우울과 스트레스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 우울검사 및 스트레스검사 측정도, 음악활동, 관악활동, 차해방과목, 민성일화예행모임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죽는다는 다른 운동처럼 숨이차지도 않고, 평소 안 쓰던 근육들을 풀어주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활동도 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 참여하길 좋았다"고 말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오는 경로당 자살예방교실 운영, 노인 우울증 검사,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노인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예방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철 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 스키 / 보드 맨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l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궁로 312(충족리 485-2)

**대표 경력**

임직원 스키 및 동계스포츠협회 전국 스키 선수권 대회(김제)대회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고령)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코치, VVO, 2014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국제대회 지도 부원 올림픽과 북미 지역을 투어 최후통 기어의 지역 팀원 수심 인물 교수로써의 자격을 취득 김제대를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국제대회 지도 부원 올림픽과 북미 지역을 투어 최후통 기어의 지역 팀원 수심 인물 교수로써의 자격을 취득 김제대를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	--